

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(20년 9월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코로나19로 가동 중단되었던 고로설비 가동재개 본격화

-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개선을 보이며 철강 수요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자 코로나 19로 가동을 중단했던 주요 철강사들의 고로 가동재개가 본격화되고 있음
 - (미국) 여름(6~7월)을 기점으로 재가동 본격화되며 가동율도 상승하기 시작
 - (유럽) 3분기 ArcelorMittal 등 대형철강사가 보유한 고로 재가동 본격화
 - (일본) JFE가 자동차용 철강재 수요 회복으로 고로 1기를 조기 재가동했으며, 일본제철도 최소 1기 재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
- 철강수요 증가는 철강가격 상승세로도 이어지고 있음. 철강사들도 생산 재개와 더불어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움직임

◆ 글로벌 원자재 가격 동향

- 9월 철강재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
 - (철광석) 9월 중순 철광석 가격이 톤당 \$130을 돌파하며 '14년초 이후 최고가 기록
 - (원료탄) 연중 안정적인 가격을(\$110/톤) 유지해오던 원료탄 가격도 9월 들어 대폭 상승(\$135/톤, 9.25)
 - (니켈) 3월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니켈 가격은 \$15,218/톤(9.15)까지 상승하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3월 대비 약 30% 상승
-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 주도의 내수확대 정책 영향으로 중국 철강사들의 생산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며 글로벌 철강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 상황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

